

가을 해남서 맛·멋의 향연... ‘해남미남축제’ 24만명 만끽

두륜산 도립공원 일대 해남 8미 선포 퍼포먼스·트롯 축하쇼 등 다채
쌀·김·고구마 등 지역 농특산물 인기...향우들, 고향사랑기부금 전달

‘2025 해남미남축제’가 팍팍 해남의 맛과 멋을 한껏 담아내며 사흘간의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해남군에 따르면 이번 축제는 지난 달 31일부터 2일까지 두륜산 도립공원 일원에서 열렸으며, 행사 기간 24만3000여 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달 31일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관광객들로 두륜산 도립공원 일원이 가득 메워진 가운데 축제의 막이 올랐다. 해남 14개 읍면 주민들이 참여한 특산물 뽐내기 퍼레이드와 해남8미(八味) 선포 퍼포먼스 등이 개막식의 주요 볼거리를 장식했다
지역 특산물인 해남 옥천면 쌀, 송지 김, 문내·화원 배추, 산이 고구마 등을 활용한 읍면별 퍼포먼스가 관람객들의 환호를 받았다. 특히, 홀로그램을 이용한 ‘해남8미’ 선포식’에서는 선정된 음식들의 특징과 유래를 상세히 소개해 의미를 더했다
축제에서는 김영대 전 재광화산향우회장이 고향 사랑기부금 500만원, 진경영 재목해남향우회장이 777만원, 해남농협과 진도농협에서 상호기부를 통

해 500만원을 기탁했다.
4년째 장학사업기금을 기탁한 해남군산림조합에서 올해도 1000만원의 장학사업기금을 기탁했다. 개막식 이후에는 손태진, 김수찬, 미스김, 정미애 등 4인의 인기트롯 가수들이 출연하는 미남트롯 축하쇼가 이어졌다.
축제장 주변은 2만8000여 점의 국화로 꾸며져 완연한 가을 정취를 자아냈다. 국화 향연장은 공룡조형물과 화려한 조명으로 장식돼 낮과 밤 모두 아름다운 볼거리를 제공했다.
특히 올해는 축제장 내 모든 음식점이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고 대화용기를 도입해 쓰레기 발생을 최소화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이번 주말 가을빛 물드는 해남에서 맛과 멋의 향연을 즐기시길 바란다”라며 “우리나라 최고품질의 농수특산물과 먹거리로 가득한 해남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계절을 보내셨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해남 14개 읍·면 주민들이 해남미남축제 행사로 열린 특산물 뽐내기 퍼레이드에 참여해 지역 특산품을 홍보하고 있다.

<해남군 제공>

‘상습 침수’ 무안읍 성남리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공모사업 선정...국비 등 492억원 확보



지난 8월 시간당 113.5mm의 폭우로 인한 피해 현장.

무안군이 기후에너지환경경부가 주관하는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무안군은 사업 선정에 따라 국비 296억원 등 492억원을 들여 무안을 성남리 일원에서 하수도 정비 사업을 발의 계획이다.
무안을 성남리 일대는 보건소, 송달문화예술회관, 상가, 주거단지 등이 밀집한 저지대 지역으로, 집중호우가 내리면 하수관로 용량이 부족해 침수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지난 8월 3일에는 시간당 113.5mm의 폭우로 인해 건물 79곳이 물에 잠기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무안군은 지난 8월 환경부에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지역 지정을 신청했다.
무안군은 노후 하수관로 정비, 배수펌프장 신설, 우수 유입 개선을 통해 하수관로 기능을 향상하고, 빗물의 신속한 배제 및 침수 예방 능력을 강화하는 등 종합적인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김산 무안군수는 “이번 중점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침수 예방사업과 24년 선정된 풍수해생활권 종합 정비사업을 연계해 무안을 일대의 침수 피해를 완전히 해소하겠다”라며 “추가적인 환경기초시설 확충사업을 추진해 무안군 전역의 하수도 인프라를 지속해 개선하겠다”라고 말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영광군, 보도블럭 정비·파손 전수조사

영광읍 일대 인도·보행로 점검...우선 정비 구간 순차 보수

영광군이 군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 보도블럭의 정비 및 파손구간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달 20~24일까지 진행됐고 영광읍 내 일대의 인도 및 보행로를 대상으로 파손, 들뜸, 침하, 미끄럼 위험구간 등을 위주로 점검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선정비가 필요한 구간부터 순차적으로 보수·교체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영광군은 이번 정비 사업을 통해 노후화된 보도블럭을 미끄럼 방지 기능이 강화된 소재로 교체해 보행 안전성을 높일 예정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보도블럭 파손은 작은 문제 같지만 군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이번 전수조사를 계기로 군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파손된 영광읍 일대 인도.

<영광군 제공>

조성하고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영광=김창원 기자 kcw@kwangju.co.kr

목포시, 소상공인·中企 공유재산 임대료 50% 감면

올 연말까지 부과 임대료 대상...다음 달 12일까지 신청

목포시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 목포시 소유 공유재산을 임차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임대료를 50% 감면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월 개정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과 행정부의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 기간에 관한 고시’를 근거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목포시는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부

과된 임대료(사용료 및 대부료)에 대해 다음 달 12일까지 신청을 받아 기본 요율의 50%를 인하여 감면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중 경영 중인 업종에 직접 사용 목적으로 시 공유재산을 임대 한 경우다. 단, 도로·공원·하천 등 타 법률에 따른 점·사용료나 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기타 사행시설 관련 업종은 제외된다.

신청은 각 공유재산 임대 주관 부서에 신청서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통장 사본 등 첨부서류를 지참해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이번 감면 조치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라며 “임대료 감면 신청은 시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각 부서의 안내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목포=정봉선 기자 jbs@kwangju.co.kr

완도 장보고장학회, 중·고·대학생 148명에 장학금

올 18개 분야 총 22억여원 지원

장보고장학회가 최근 중·고·대 장학생과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장보고장학회 하반기 장학증서 수여식’을 가졌다. <사진>
이번 수여식에서는 지역 고등학교 출신을 대상으로 한 ‘장보고 장학생’과 중·고·대학생 대상 ‘지역인재육성 장학생’ 장학금이 전달됐다.
총 3개 부문 장학생 148명을 대상으로 했다. 이 가운데 ‘장보고 장학금’은 3명에게 1365만원, ‘지역인재육성 장학금’은 43명에게 3830만원이 주어졌다.
장보고장학회는 많은 학생들이 장학사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올해 18개 분야에 총 21억 7600만원을 지원했다.
이사장 신우철 완도군수는 “장학증서를 받은 학생들이 지역민과 향우들의 정성스러운 마음을 기억하며 훌륭한 인재로 성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7년 설립된 (재)장보고장학회는 현재까지 194억여원의 장학기금을 조성했으며 올

해 1622명에게 6억6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진도 고군면에 ‘농업근로자 기숙사’

내년 공모사업 선정...오산리에 40여명 수용 시설 조성

진도군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6년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군은 농업 근로자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외국인 근로자 유입을 확대해 농촌 고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기숙사는 2028년 완공 예정으로 국비 12억원,

도비 3억6000만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35억원을 투입해 고군면 오산리에 40명 수용 규모의 객실, 세탁실, 공용식당, 휴게실 등을 조성한다.
진군은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922명이 입국해 농촌 일손 부족을 해소하고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농어가에 빈집 개보수나 이

동식 조립주택 설치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또 외국인 계절근로자 의료비, 재입국 근로자 항공료, 언어소통 도우미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진도군 관계자는 “기숙사 건립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해 인력 수급의 확실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농업 근로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kwangju.co.kr

신안군, 섬 주민 통합 돌봄 체계 시범사업

일상생활 불편 주민 조기 발굴

신안군이 섬 지역 의료·요양·돌봄 서비스의 통합 지원을 위한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는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섬 지역 주민들에게 더욱 폭넓고 체계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이번 사업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

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조기에 발굴해 의료 및 돌봄 필요도를 면밀히 조사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보건 의료, 건강관리, 일상생활 돌봄 장기요양 등 다각적인 통합 돌봄 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할 계획이다.
군은 지역사회 돌봄 제도의 견고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협력기관들과 간담회와 교육을 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영암 시종서 ‘마한역사문화제’ 14~15일 마한문화공원 일대

영암 시종면 마한문화공원에서 오는 14일부터 이틀간 마한의 역사와 문화를 현대적으로 재조명하는 ‘2025 마한역사문화제’가 열린다.
문화제 현장인 시종 고분군은 영산강 유역 마한 세력의 생활상과 장례, 교역 문화를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 유적으로 한반도 남부 고대사의 실체를 밝히는 핵심 근거로 평가된다.
영암 농특산물 판매존과 향토 먹거리 장터도 운영될 예정이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